

## 대한민국 남자, 또는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승희 무론숄 편집부

나의 아버지는 나름대로(보기에 따라선 꽤) 자상한 분이였다. 부족한 살림살이에도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을 사주어 아내에게 편잔을 듣기도 하고, 퇴근길에는 소소한 간식거리를 잊지 않고 사오는 아버지였다. 어떤 식으로든 자식에게 체벌을 가한 적도 없었다. 매를 들고 혼내는 일은 늘 어머니의 몫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알 수 없는 벽을 느꼈다. 늘 책이나 신문을 끼고 살면서 말수가 적었던 아버지, 늘 옳은 말만 하는 아버지에게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다. 정년퇴직을 하신 뒤로 아버지는 더욱 말을 아끼셨고, 가족 안에서 마치 섬처럼 홀로 떠돌았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쓸쓸한 모습에 마음이 아파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다. 그러기엔 아버지와 나 사이에 놓인 벽이 너무 두터웠다. 그런 점에서 《남자의 탄생》을 만난 것은 내게 큰 행운이었다.

이 책은 완성도 높은 원고에서 기획이 시작된 경우였다. 첫 만남부터 ‘의미’와 ‘재미’가 모두 충족되는 책이 될 것이라는 좋은 예감이 있었다. 저자는 권위주의와 자기애의 동굴에 갇혀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한국 남성들의 모습과, 그들을 그렇게 만든 한국적 현실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너무 다양한 이야깃거리가 담겨 있다는 점이었다. 기본적인 내용 말고도, 가부장제의 전통(?)이 남아 있는 한국적 가족문화, 전근대와 근대가 교차하는 20세기 한국사회의 한 단면 등 가족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두루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 한 편의 글 안에 이렇게 다양한 줄기가 있다는 것은 자칫 책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자와 여러 차례 논의하여 내린 결론은 “대한민국 남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 한 아이의 성장과정을 통해 보는 한국 남자의 정체성 형성과정”이라는 큰 줄기에 맞추어 원고의 일부를 잘라내고 수정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로 지난한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저자의 인내심 덕분에 기획 의도에 맞는 책으로 내놓을 수 있었다.

책이 출간된 후 ‘한국 남자의 탄생’이라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충실히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훌륭하지만, 이론화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해 아쉽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이론화 작업은 자료의 집적이 있는 뒤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책은 그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지 않나 싶다.

흔히 하는 말로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라고 하지만, 이 책의 경우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욱 소중했다. 아직 갈 길이 먼 편집자로서도 그랬고, 개인적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랬다. 이 책을 진행하는 동안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조금씩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어느 순간 갑자기 아버지와 나 사이의 벽이 사라지는는 않겠지만, 벽을 허무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믿고 싶다. 이 책을 통해 많은 독자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